

디지털치료제

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을 예방·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. 바이오 의약품보다 비침습적, 즉 신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,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속 기존 약물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. [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김형숙](#) 교수 연구팀이 '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' 연구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 중에 있다.

관련기사

- <뉴스H> 2021.07.23 [김형숙 교수 연구팀, '포스트코로나 정서장애 디지털치료' 연구 주관기관 선정](#)
- <서울경제> 2021.06.16 [이젠 앱이 \(치료제\)···코로나 블루\(우울증\), 게임으로 치료한다](#)
- <뉴스H> 2021.04.22 [한양대-삼성 서울병원,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 위한 MOU](#)
- <뉴스H> 2021.04.15 [\[신문 읽어주는 교수님\] 디지털 치료제가 뭘까?](#)